

광주 찾은 임종석 “文정부 만든 광주가 민주당 중심 돼달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남구 무등시장 입구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4·15 총선 지역 유세 지원에 나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문재인 정부를 만든 광주가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 돼 달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에서 지지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이번 총

선 결과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안정이나 혼란이나, 협력이나 대립이냐를 가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광주 정신”이라는 광주의 민심은 촛불과 문재인 정부를 만드는 데 선두에 있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광주 정신, 촛불과 문재인 정부 만드는데 선두에”
“호남대통령 만들기, 민생당이 할 수 있는 일 아냐”

이어지는 정방향 역사의 지속 창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후반에 너무 실망스러워 ‘몽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한국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게 전국적 여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함께 변화해준다면 우리가 세계 모범국가구나, 선진국이 멀지 않구나 하는 걸 국민들은 느낀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위해 광주는 새로움을 선택했다는 역사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에서 상승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임 전 실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이전에 정착했다는 게 가장 크다”며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라는 신뢰를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낯날이 공개하고 공유하며 같이 도와달라고 호소해 국민들이 신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지역 민생당이나 무소속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혼자’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정치는 유권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시대정신을 반영

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한 데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게 정치인의 운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총선과 이후 대선까지 본다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무소속이든 민생당이든 현역으로 되신 분이 힘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분들 개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생당 후보들의 ‘호남대통령론’에 대해서는 민생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

어졌고 호남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분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호남대통령’이라는 요구와 바람이 호남 전반에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선 가능성 있는 호남의 주자가 있더라도 전국적 기반과 만났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현재 구도에서 민생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결국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당 후보들이) 총선 시점에 노골적으로 호남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이쪽 말로 좀 ‘거시기하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광주의 선택은 늘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한국정치를 새롭게 하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에 안정시켜며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도록 광주가 중심에 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광주의 딸’ 양향자·권은희, 국회 입성할까

여론조사서 6선 천정배와 재대결 양향자 ‘압도’
비례대표 3번 권은희 후보도 ‘비교적 안정권’

21대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여성 후보인 양향자 서구를 후보와 재선 의원인 권은희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등 자칭 타칭 ‘광주의 딸’들이 국회에 입성할지 관심을 모은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

면 두 후보 모두 ‘금배지’를 달 가능성이 높다. 양향자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맞붙었던 6선의 천정배 민생당 후보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다. 뉴스1광주전남취재본부와 광주전남언론포럼,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전남매일, 광주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알앤씨에 의뢰해 지난 3월30~31일 실시한 광주 서구를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양 후보는 52.9% 지지를 받아 21.4%에 그친 천 후보를 압도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덕분에 3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자체 실시한 ‘전국 정치(정책)조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총선 비례대표 정당 예상 득표율 - 투표율 가중 &



부동층 배분 결과’에서 국민의당은 8% 지지를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비례 3번 인 권 의원은 당선 안정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윤호 기자



민생당 김동철·박주선 의원 등이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생당 중진의원들 “文정부 성공 시킬 것”

광주·전남지역 민생당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범 개혁연대를 제안했다. 박주선·김동철·장병완·황주홍 의원은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기 촛불정부 수립과 25년만의 호남재집권 시대는 마지막 정치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의 절박함에서 출범했으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이 국정농단 세력의 저항으로 멈춰서 있다”며 “민주당과 민생당을 비롯한 범 개혁 세력이 연대하고 협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중개혁세력 재집권 과제는 경험이 일천한 정치 신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엄중하고 중차대한 일”이라며 대부분 초선으로 구성된 민주당 후보들을 우회적으로 견제했다. 이들은 또 “민생당과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하나의 뿌리”라며 “다시 하나가 돼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호남대통령 만들기’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소병철 민주당 후보, 선관위 주최 토론회만 참석... ‘뒷말’ 무성

“검증 피하나” 비판에 “의견 조율 안돼서” 해명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가 6일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만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하다. 순천시선관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5시까지 여수MBC에서 생방송 토

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미래통합당의 천하람, 민생당 기도서, 정의당 강병택, 민중당 김선동,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참석한다. 하지만 소병철 후보가 선관위 주최 토론회 외에 6일부터 실시되

는 전남CBS라·LG헬로비전 아라방송·남도일보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순천KBS가 요청한 노관규 후보와의 1대1 라디오 토론과 천하람 미래통합당 후보가 제안한 ‘검찰 개혁’ 관련 토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관계자는

“짧은 선거기간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어려울 수 있고, 쪼개기 선거구 확정 등으로 공격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지역의 일꾼을 맡겠다는 여당 후보가 검증을 피하는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소병철 후보 측 관계자는 “선관위 토론회는 참석하지만 다른 언론사 주최 토론회는 일정과 참석자 조건 등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